

# ‘여름 명소’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올해는 쉬어간다

### 당초 7월초 개장 계획...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운영 취소 결정

### “지역민 건강·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검토...양해·협조 부탁”

여름철 피서(避暑) 명소인 함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휴장한다.

함평군은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7~8월 개장하던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운영을 올해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파도풀(782㎡), 유아풀(78㎡), 어린이풀(234㎡), 슬라이드풀(1,055㎡), 워터버킷(251㎡)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

춘 가족형 워터파크다.

특히 깨끗한 수질과 저렴한 가격, 배달음식 반입 등이 큰 호평과 함께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이용객만 5만 7000여 명, 수입액으로는 5억 4000여만 원을 기록했다.

군 관계자는 “함평엑스포 물놀이장은 매 휴가철마다 수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전남권 대표 여름휴양 시설”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역감염 확산

방지차원에서 운영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염병 관리 전문가들은 물놀이 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한정된 공간에 장시간 머무는 만큼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비말 전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또 이용객 대부분이 어린이인 데다 물속에서는 사실상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해 당국의 방역위생지침을 준수하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영성 함평군엑스포공원사업소장은 “기상청이 올 여름 폭염 가능성을 평년보다 높게 예보하면서 군 자체적으로도 올해 물놀이장 흥행

성적을 많이 기대했는데 어렵게 됐다”면서, “지역민 건강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렵게 취소를 결정한 만큼 이용객

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신안군, 흑산권역 의료서비스 확대 개선

### 흑산보건지소 방사선, 임상병리검사 개시



신안군은 흑산보건지소 기능보강을 통하여 섬주민들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골절 등 X-선 진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지소는 각종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공중보건사의

의 간단한 진료와 투약만 가능했었다. 때문에 흑산권 섬사람들은 간단한 검사라도 여객선을 이용하여 목포 의료기관까지 나가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건지소에서

도 채혈을 통한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혈구검사 등 각종 혈액검사와 함께, X-선 검진을 통하여 골절검사, 결핵검사 등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시 무조건 육지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응급검사를 통하여 더 정밀한 진단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송이 반드시 필요한 응급환자만 이송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각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보건의증)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검진대상자 120명 정도가 육지로 나가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다.

신안군관계자는 “보건지소에 검사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 되었다”며 특히, 보건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위생업소,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목포시, 22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예정

### 시설별 방역관리 철저·이용자 방역지침 반드시 준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차원에서 임시 휴관했던 목포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을 재개한다.

목포시는 오는 22일부터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로식당과 이용자가 소수인 프로그램부터 운영하고, 목욕탕이나 댄스 동아리 같은 다수 이용 프로그램은 향후 추이를 보고 재개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리사회

복지관,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명도복지관, 목포시노인복지관, 목포포이랜드노인복지관, 하량노인복지관, 하나노인복지관 등 9개소이다.

여성복지시설 6개소(여성상담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4개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목포YMCA,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개소(명도주간, 성산그

직업재활시설 3개소(명도자립, 예순자립, 소망자립)는 지난 15일 이미 개관하였다.

운영시설들은 코로나19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및 방역물품 비치, 강화된 방역소독 등을 꼭 실시해야 한다.

또, 이용자들은 출입시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편, 목포시는 경로당 및 청소년수련시설(수련원, 문화센터, 성문화센터) 등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7월 중 개원할 예정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 영광군, 주요 관광지 시설물 운영 재개

영광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잠정 휴관 중이었던 주요 관광지 시설물에 대하여 오는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방문객 맞이 준비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시설물(노을전사관, 칠산타워,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유물전시관을 대정소하고 실내방역 및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관광시설물의 운영을 재개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 차원으로 노을전사관 내 설치된 VR 체험기 운영은 하지 않으며 시설물을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과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영광군, 터미널 주차타워 및 (구)우시장 주차광장 유료화

영광군은 장기주차 등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다수의 군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 및 (구)우시장 주차광장을 유료화한다.

유료화가 되는 공영주차장 2곳은 연중무휴로 이용객이 많은 0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무료로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 부과

될 예정이며 그 외의 시간은 주변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또한, 장기주차 차량 방지라는 유료화 취지에 맞게 정기권(월권 등)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며 1일권은 5,000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상가 이용객 및 주변 주민들을 고려하여 시간제 운영을 결정했다”며 “처음으

로 추진되는 주차장 유료화인 만큼 시행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권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요!